

가짜휘발유 근절과 특별소티세 인하

金 乾 洽

〈大韓石油協會 弘報室長〉

中國의 故事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 옛날에 조조가 승상을 할 때, 그의 집 앞뜰에 열매 잘 맺는 비파나무가 한그루 있었다. 조조가 이 나무를 사랑해서 누구도 비파를 따지 못하게 하고 몰래 비파를 세어보곤 하였다. 한번은 부하 한 사람이 조조가 없는 틈을 타서 비파를 두개 따먹었다. 뒤에 돌아온 조조는 비파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의심스런 부하 몇명을 불러 일을 시키는체 하다가 짐짓 『잇은 것이 있군. 이 비파나무가 방해되니까 이 나무를 베어 버려라』고 명했다. 그러자 비파를 훔쳐먹은 부하가 그렇게 맛있는 비파를 왜 베어버리느냐고 반문하여 자기가 진범임이 들통났고 조조는 비파를 훔친 그 도둑을 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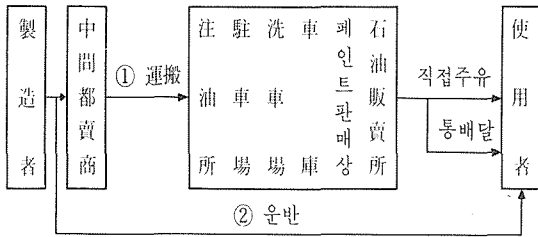
대한석유회社は 가짜휘발유를 뿌리뽑기 위하여 지난 4월 15일부터 가짜휘발유신고자 포상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석유회社は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 우선 油公, 湖南精油, 京仁에너지, 雙龍精油, 極東石油 등 정유 5社로부터의 출연으로 1억 5천만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이 제도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당초의 기대대로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포상제 실시 한달이 지난 요즘에도 석유회社에는 가짜 휘발유를 알리는 신고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4월 15일 이 제도가 실시된 이후 5월 15일까지 한달동안 석유회社를 비롯하여 전국의 각기관에서 접수된 신고건수는 총 1백 46건에 이르고 있다. 이를 접수기관별로 보면, 석유회社가 72건으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전국 각시도 및 경찰 등에서 접수돼 석유회社에 통보된 것이다. 또 지역별로 보면, ① 서울이 93건으로 가장 많고, ② 釜山 15건, ③ 大邱·全北이 각 8건, ④ 慶南 6건, ⑤ 全南 5건, ⑥ 仁川 4건, ⑦ 京畿 3건, ⑧ 忠南 2건, ⑨ 慶北·江原이 각 1건 등의 順이며, 忠北은 1건도 없다.

이러한 신고상황으로 미루어 볼 때, 현재 가짜휘발유는 일반이 추정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뿌리깊고, 또 광범위하게 유통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서울의 경우는 시내전역에서 골고루 신고되고 있다. 이제 가짜 휘발유는 도처에서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公敵임이 입증된 셈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시행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에 봉착하고 있다. 우선 가짜휘발유는 주로 아침 일찍이나 야간을 이용, 자동차에 주유하거나 전화주문에 의해 통배달을 하는 방법을 이용하기도 하고, 주차장·세차장·자동차정비공장 등에서 주차, 세차, 정비, 윤활유급유시에 주유하기 때문에 외부에 쉽게 노출되지 않고 있

가짜휘발유 유통경로



연도별 特別消費稅率 변동추이

(單位：%)

年 度	1970	1974	1977	1979	1980	1983
稅 率	200	300	160	180	130	100

註：휘발유 기준

다. 또 신고를 받더라도 수사당국이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여 적발,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고, 또 검찰이 신속하게 기소여부를 결정하지 않는 한, 이 제도의 소기의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다. 경찰에 직접신고된 것을 제외하고는 석유협회가 이를 취합, 분류하여 다시 각 해당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이것이 일선경찰까지 통보, 전달되는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며, 또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더라도 이미 관련자들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행방을 감춘뒤라는 것이다.

가짜휘발유는 업계만의 노력으로 근절되기에는 그 뿌리가 너무 깊고 광범하다. 가짜휘발유의 근절은 업계와 시민, 그리고 수사당국이 삼위일체가 되어 보다 긴밀한 협조체제가 이루어질 때 비로서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가짜휘발유를 뿌리뽑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가짜휘발유가 유통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진짜휘발유와 가짜휘발유의 가격차에 기인되고 있다. 보통휘발유의 주유소판매 가격이 ㄹ당 6백60원인데 비해 가짜휘발유는 2백60~4백원에 살 수 있으며, 또 진짜 휘발유에는 100%의 특별소비세가 부과되어 ㄹ당 2백77원 91전의 특소세가 붙기 때문에 가격차의 마진을 노리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또 휘발유에는 100%의 특별소비세가 부과되는데 반해 가짜휘발유의 원료를 사용하는 솔벤트, 벤젠, 톨루엔, 킴실렌 등은 정상적인 용도가 공업용 원료로서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특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진짜휘발유와 가짜휘발유의 가격에는 많은 차이가 나고 있다.

이와 같이 휘발유에 고율의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게 된 것은 지난 70년대 두차례의 석유위기를 겪으면서 국제원유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속에서 휘발유를 사치성 소비품으로 인정, 소비절약시책의 일환으로 특별소비세를 부과하게 된 것으로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의 소비자

들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휘발유를 사서 쓰고 있다.

그러나 휘발유에 대한 특별소비세부과는 당초의 취지와는 달리 진짜휘발유의 수요를 축소시킴으로써 稅收결함의 요인이 되고 있다. 1982~1984년 기간중 가짜

휘발유가격의 국제비교

(單位：원/ㄹ)

국 別	가 格	공장도 (세전)	소비자 (세후)
韓 國	國	277.91	660.00
台 灣	灣	436.89	498.09
日 本	本	325.04	531.04
西 獨	獨	243.09	398.24
프 랑 스	스	214.59	471.04
英 國	國	255.09	440.69
이 탈 리 아	아	201.20	614.64

稅收결함 추경

(單位：億원)

	1982	1983	1984	계
특별소비세	1,067	431	386	1,884
부가가치세	213	86	77	376
소득세 등	186	75	67	328
계	1,466	592	530	2,588

휘발유의 유통으로 인한 稅收결함은 특별소비세,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의 부문에서 총2천5백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가짜휘발유신고자 포상제도는 어디까지나 精油社단체의 단기적 대책에 불과하다. 가짜 휘발유를 근원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우선 稅制와 油價제도의 개편이 불가피하며, 특히 현재 100% 부과되고 있는 휘발유의 특별소비세를 인하여 진짜휘발유와 가짜휘발유의 가격차이를 없애는 길밖에 없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